

「포스트모던」 시대의 영미문학의 이해

李 廷 鎬

(영문과 부교수)

「포스트」자 돌립의 시대

하나의 시대를 지칭하는 적절한 이름을 찾아서 쓴다는 것은 쉬운듯 하면서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¹⁾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당대를 어떤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영국의 경우 예전에는 하나의 시대를 지칭하는 방법으로 그 시대의 왕의 이름을 따서 쓰는 경우가 통례였다.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시대라든지 빅토리아조(朝)문학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왕의 이름을 따서 어떤 시대의 문학을 부르는 명칭으로 삼았다. 이것은 아주 손쉬운 방법이였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어느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지칭을 써서 한 시대의 이름으로 쓴 예들이다. 예를 들면 낭만기(Romantic period)라든지 신고전주의 시대(Neo-classic period)라고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 경우에는, 이러한 명칭은 당대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대개의 경우 후대에 와서 붙여진 것들이다. 예를 들면 낭만기라고 불리우는 시대구분이 그 한 예이다. 우리가 지금 낭만시인이라고 부르는 시인들은 그들이 살던 당시에는 자신들을 낭만시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후세에 자신들이 낭만시인이라고 불리워지거나, 또한 그들이 살던 시대가 문학사에서 낭만기라고 불리워질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명칭은 편의를 위하여 후세에 와서 붙여진 것이어서, 하나의 시대를 묶는데는 편리하지만, 어떤 한 시기에 살던 각각 개성이 다른 작가나 시인을 통털어 부르는 이름으로는 역치향식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은 낭만시인으로 부르는 Blake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낭만기 전(Pre-Romantic)시인으로 분류되어 James Thomson이나 William Collins, Thomas Gray들과 같은 부류로 간주되었다. Blake가 낭만시인으로 불리게 된 일은 이처럼 오래 전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Blake는 같은 낭만기의 시인으로 분류되는 Wordsworth와 Coleridge와는 접촉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시풍과도 전혀 다른 시풍의 시를 썼다. 이처럼 한 시대를 부르는 말은 그리므로 대단히 자의적(恣意的)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왕은 그가 사는 동안에는 자신의 칭호——즉, 세종이라든지 고종이라고 하는——가 없다. 왕이 자신의 칭호를 가지게 되는 것

1) Steven Conor, *Postmodernist Culture: An Introduction to Theories of the Contemporary* (N.Y.: Basil Blackwell, 1989), p.3.

은 그가 죽고 난 후에야 가능했다.

이는 예전에는 시간의 흐름을 기다리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고, 또한 자신들이 살던 시대를 지칭하는 이름을 성급히 가질 필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요새 사람들은 그전과는 달리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자기들이 살던 시대를 어떻게 부를까를 후대사람들의 판단에 맡기고 싶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손수 자기가 사는 시대의 이름을 붙이고 싶어한다(마치 나폴레옹이 그의 대관식에서 교황으로부터 왕관을 받아 쓰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자기 머리에 왕관을 쓴 것과 같은 격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저 몇 십년대라고(즉, 90년대 등) 부를 수도 있으나, 이는 너무 특징이 없고 확실적인 느낌이 든다. 필자는 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포스트-」의 시대라고 부르며, 이의 형용사는 「포스트-」적이라고 쓰고저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포스트-」이즘>의 시대라고 하면 좀 더 포괄적인 명칭이 될듯하다. 지금쯤 눈치 빠른 독자는 이미 알아차리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포스트-」는 영어의 「Post-」라는 접두사를 우리말 발음으로 적은 것이다(정확한 발음은 물론 「포우스트-」이지만). 이러한 접두사가 붙은 말이 지금의 시대를 지칭하는 적절한 이름으로 생각되는 이유는 이러한 접두사를 가진 명칭들이 요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산업화 시대(Post-Industrial age) 등이 몇 가지 대표적인 예이다(사실 몇 년 전부터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 앞에 「포스트-모던」이라는 카페/레스토랑이 있는 걸 보면 「포스트-」자 돌림으로 시작되는 명칭들은 이미 우리들 앞에 벌써부터 와 있는게 틀림 없다).

<「포스트-」이즘>의 시대에 대한 용어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몇 가지의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이다. 우선 우리나라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의 논쟁부터 보기로 하자.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소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백낙청 교수에 의한 것이었다. 그는 《민족 문학과 세계 문학 II》(창작과 비평사, 1985)에 실린 <모더니즘에 관하여>라는 논문의 제 2부에 <포스트-모더니즘의 시작>이라는 제목 밑에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 쓰고 있다. 그는 “모더니즘 자체의 파산 선고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름으로 내려진 것”(위책, p. 411)이라고 말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명칭 자체가 그 내용의 빈곤을 말해 주는 감이 없지 않다”(위책, p. 412)라고 그의 의견을 진술한다. 이러한 그의 진술은 그가 리얼리즘(Realism)의 편에서 있는 비평가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술이다. 즉, 리얼리즘의 문학과 모더니즘의 문학과는 서로 이념적인 대립이 있기 때문에 모더니즘 문학 자체를 백 교수는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모더니즘 문학이 벌써 반세기 전에 끝났다”(위의 책, p. 412)고 그는 말한다). 이런 마당에서 그에게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논의는 더더욱 못 마땅한 것이라는 사실은 물을 필

요도 없이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예술을 ‘현대 이후’ 또는 ‘탈현대’ 주의로 부른다는 것이야말로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느낌이다”(위책, p. 412)라는 그의 말은 이러한 그의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각에서 소개된 셈이다.

이처럼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 나라에 소개된 「포스트—모더니즘」은 80년대의 우리의 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결코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순조로운 운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그 뒤 김 성곤 교수가 낸 《탈(脫) 모더니즘 시대의 미국 문학》(서울대 출판부, 1989)이라는 저서는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 의해서 조성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호기심에 답하는 것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백 교수의 부정적인 시각은 「포스트—모더니즘」을 소개하는 데에 처음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에 더 큰 효과를 가져왔다.

김 성곤 교수는 「포스트—모더니즘」을 한국말로 「탈(脫)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80년대 한국에 풍미하던 리얼리즘 일변도의 문학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외국문학》 1989년 겨울호에 실린 〈「포스트모더니즘/포스트리얼리즘」을 꾸미면서〉라는 특집호의 서문에서, 90년대의 문학형태는 “탄탄한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하되, 권력과 억압의 구조가 불가시적이 되어 버린 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리얼리티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포스트모던 리얼리즘〉이 되어야 할 것이다”(위책, p. 9)라고 쓰고 있다. 그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90년대에는 리얼리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서로 힘을 합하여 손잡고 〈포스트리얼리즘〉 또는 〈포스트모던 리얼리즘〉 문학을 산출”할 것을 역설한다(위책, p. 9). 이는 리얼리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연대에 대한 일반론적인 말이라고 보이지만, 구체적인 맥락은 백낙청 교수의 리얼리즘에 대해 화해와 협조를 요청하는 손짓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백 낙청 교수의 대답은 《창작과 비평》 1990년 봄호에 실린 그의 프레드릭 제임슨과의 대담인 〈맑시즘, 포스트모더니즘, 민족문화운동〉에 나타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전통적 형식들로 돌아간다는가 19세기 사실주의와 같은 서양의 문학, 예술의 낡은 형식들을 채택함으로써 이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총체화하는 비전을 간직한다는 의미에서의 리얼리즘을 어떤 식으로든 달성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에서 서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포스트—모던한 리얼리즘’(post-Modern realism)이라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위책, pp. 285-6).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백 교수는 김 교수의 화해의 제스처를 받아들여 이에 동의했다는 사실이다. 백 교수는 ‘포스트 모던한 리얼리즘’이라는 말로 새로운 형

태의 리얼리즘을 지칭하고 있지만, 이는 곧 김 교수가 말한 포스트모던 리얼리즘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일뿐 영어로 쓰면 이 모두는 post-Modern realism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백 교수의 입장은 그가 처음에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인 시각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며,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지극히 현명하고 당연한 일이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그의 양식과 변화하는 상황(특히 동구 및 소련의 변화)에 기초한 그의 변화된 인식을 대승적으로 보여 주는 멋진 플레이로 보인다. 이는 90년대의 시대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이며, 앞으로 이와 같은 멋진 플레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학의 이해에 대한 우리의 폭은 넓어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던 리얼리즘」 등 「포스트—」이즘이 한국에 어떻게 소개되고 수용되었는지를 간단히 살펴 보았다. 이러한 「포스트—」자들립의 이즘이 수용되는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선,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의 이분법적인 구별에 기초해서 이들 서로 간에 보이던 반목과 불화가 「포스트—」시대에는 화해와 이해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는 곧 「포스트—」시대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화해와 이해에 기초한 「포스트—」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Post-」는 왜 「포스트—」인가 ?

우리는 요새 「Post-」라는 접두어가 들어가는 많은 용어들을 만나고 있다. 몇개의 예를 들면 Post-structuralism, Post-modern, Post-industrial 등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Post-」라는 말의 한국어 번역이다. 「Post-」라는 용어는 원래 「후(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어떤 것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오는 성격이 다른 또 다른 어떤 것이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예를 들면, 삼국(三國) 다음에 오는 또 다른 삼국이 올 경우, 우리는 이를 후삼국(後三國)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그러나, 영어의 접두사로 쓰이는 이 「Post-」는 여러 가지로 번역돼 있다. 1990년 1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수안보 파크 호텔에서 한국 현상학회가 주최하는 신춘 쉼미나가 「현상학과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쉼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묶여져 나온 것을 봐도 「포스트모던」이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돼 있음을 볼 수 있다. 김진석(인하대) 교수는 Postmodern을 단지 「현대—「다음」」이라고 번역함으로써 Postmodern을 단지 시간적으로 modern 다음에 오는 시기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진우(계명대) 교수는 Post-modern을 “탈(脫)현대”라고 번역함으로써, 현대(modern)과 Postmodern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나 이 광래(강원대) 교수는 Post-Structuralism을 후기구조주의 또는 탈(脫)구조주의

라고 부르지 않고, 포스트—구조주의라고 부름으로써, Structuralism과 Post-structuralism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성과 단절성을 모두 포용하는 단어로 「Post-」를 그대로 「포스트—」라고 적고 있다. 필자도 이 광래 교수와 입장을 같이 하여, 「Post-」를 「포스트—」라고 적음으로써 Modernism과 Postmodernism 사이에 있게 마련인 연속과 단절을 동시에 포용하는 말로 쓰고자 한다.

「Post-」의 번역은 위에서 본 철학에서 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통일된 용어로 번역돼 있지 않다. 우선, 「Post-」를 탈(脫)의 입장으로 보는 경우는 김 성곤 교수의 경우이다. 그는 Postmodernism을 「탈모더니즘」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정 정호(중앙대) 교수는 「Post-」를 후(後)적인 면과 탈(脫)적인 면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봐서, 「Post-」의 번역에 있어서도 「후기/탈」로 표기하고 있다. 반면 김 옥동(서강대) 교수의 경우에는 「Post-」를 「포스트—」로 표기함으로써 이 광래(강원대) 교수와 마찬가지로 「Post-」가 갖는 후(後)적인 요소와 탈(脫)적인 요소를 「포스트—」라는 말로 모두 포함시키고자 한다. 필자는 「Post-」를 「포스트—」라고 표기함으로써, 이 말이 갖는 후(後)적인 요소와 탈(脫)적인 요소를 이 말 속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러므로, Postmodernism은 「탈모더니즘」이기 보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표기한다. 마찬가지로 Post-structuralism은 「탈구조주의」이기 보다는 「포스트—구조주의」로 표기한다.

포스트—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과의 관계

포스트—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과의 관계를 살펴 보는 것은 아주 의의있는 일이다. 우선 이 두 개의 명칭에서 보듯이,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주의에서,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에서 각각 대승적으로 발전하여 성립된 것이다. 이 둘의 관계는 모더니즘 시대에 모더니즘과 신비평(New Criticism)사이에 존재하던 관계에 비유하면 그 이해가 쉬울 것이다. 신비평은 모더니즘이라는 문학적인 현상에 이론의 틀을 제공하고, 이를 이념적으로 유지·발전시킨 이론이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포스트—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문화 및 문학적인 현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이론의 틀이 바로 포스트—구조주의이다. 포스트—구조주의의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불란서의 철학자인 Jacques Derrida의 탈구조이론(Deconstruction)²⁾을 들 수 있다. 데리다의 탈구조 이론은 구조주의적인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구조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그 이론의 출발점으로 한다는

2) Deconstruction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여러가지로 번역해 쓰고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번역은 해체(解體)라는 용어인데, 필자는 이 용어를 쓰지 않는다. 그 이외에도 이명설 교수는 이 말을 파원(破源)으로 번역한다.

점에서 포스트—구조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을 볼 것).

포스트—구조주의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포스트—구조주의는 중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포스트—구조주의는 중심을 갖지 않는 주의이고, 이것이 더 발전하면, 구조의 어디에나 중심이 있다는 말이 된다. 이는 결국 중심은 어디에도 없다는 말이 된다(어느 곳에나 있는 중심은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포스트—구조주의는 그러므로 현전(現前, presence)를 부정한다. 현전은 대개 말(또는 음성) 중심에 의해서 가능한데, 이 경우 음성 중심이 부정된 포스트—구조주의에서는 문자 중심이 된다. 음성 중심과 현전을 중요시하는 기독교를 포스트—구조주의와 대비시켜 보면 이 둘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Word, *λογος*)은 곧 신의 말씀이며, 이는 곧 신의 현전을 가리킨다. 그러나, 문자중심이고 현전이 부정된 포스트—구조주의에서는 「말씀」의 자리는 부정된다. 따라서, 포스트—구조주의에서는 목적(*telos*)이 부정된다.

이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포스트—구조주의는 그 이론의 성질상 몇 가지 현상을 가능케 한다.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심적이 아니고 원심적이며, 통합적이 아니고 확산적이다. 또한 포스트—구조주의는 통일적이 아니고 분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포스트—구조주의의 특징은 우선 수사(rhetoric)적인 면을 강조한다. 포스트—구조주의에서는 의미의 중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확산적이고 원심적인 수사를 중요시하게 된다.

포스트—구조주의적인 가정은 또한 여성주의(Feminism)를 가능하게 한다.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이 가지고 있는 남근(phallus)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으로 여겨졌다. 여기서 남근이란 중심(center)를 나타내는 남성 우위론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제 중심이 인정되지 않는 포스트—구조주의에서는 프로이트의 이론은 비판을 받게 된다. 남근이 이성과 중심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면, 이제 이성과 중심이 제거된 상태에서 여성주의는 당연히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된다. 이성에 반대 되는 감정(또는 감정), 영혼에 반대는 육체는 이제 여성주의를 튼튼하게 하는 존재이유가 됐으며, 질서가 없어진 세계에서 여성이 대표하는 무질서(chaos)는 이성의 횡포를 막는 가장 훌륭한 무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여성 중심적인 문학이론은 이러한 포스트—모던적인 상황에서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포스트—구조주의가 가능하게 만든 또 하나의 문학이론은 독자반응(Reader Response) 문학이론이다. 이제까지 독자는 문학의 논의에서 주변적인 존재였으나, 이제 중심과 주변의 구별이 없어진 지금, 독자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제 독자는 그저 수동적인 문학의 소비자의 단계에서, 능동적으로 의미를 생산해내는 적극적인 위치로 격상이 됐다. 독자가 가정되지 않은 문학은 이제 더 이상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포스트—구조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던적인 문화와 문학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제공하여, 획일적이 아닌 다양한 이론의 출발점을 제공한 셈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몇 마디의 말로 간추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포스트모더니즘을 특징지우는 경향 중의 하나가 바로 주체와 객체의 구별을 허물고, 또한 주체와 객체 사이의 벽을 없애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주체에 의한 객체의 관념화 및 개념화는 대단히 위험한 짓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득(得)이 해(害)보다도 많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이다.

Ihab Hassan은 그의 *The Postmodern Turn*이라는 책의 “Toward a Concept of Postmodernism”이라는 장(章)에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대비하면서 이 둘의 특성을 도표로 만들어 보여 주고 있다(pp.91-92). 이 도표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잡아 간단명료하게 이 둘을 비교·대비해 보여주고 있다.³⁾ 여기서는 이 도표를 소개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이러한 특징들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간단히 짚어 보기로 한다.

포스트모던 현상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와 유일(唯一)의 부정이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상대(相對)와 다량의 긍정이다. 그러므로 모더니즘에서는 목적, 의도, 위계질서, 말(로고스), 은유(metaphor), 근원(origin), 남근(phallus), 하느님 아버지(God the Father)가 중요시했던데 비하여,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유희, 우연, 무질서, 침묵, 환유(metonymy), 차연(差延, differance), 양성(兩性, androgyne), 성령(The Holy Ghost)이 강조된다. 이는 모더니즘에서는 현전(現前, presence)을 기초로한 중심화(centering)인데 비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은 부재(不在)에 기초한 탈중심화(decentering) 또는 분산화(dispersal)가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모더니즘에서는 목적이 있고 근원을 중시했기 때문에 시작과 종간과 끝이 확실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인데 비하여,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목적이 없는 유희(play)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시작은 곧 근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열려진 구조의 입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에는 끝이 있을 수 없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텍스트는 그러므로 열려있는 구조일뿐이다.

3) 김성곤 교수는 그의 《탈모더니즘시대의 미국 문학》에서 비슷한 도표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대비하고 있다(pp.22-23). 정정호 교수 역시 그의 《포스트모더니즘》(종로서적, 1985)에서 Hassan의 도표를 발췌하여 번역해 놓았다(pp.248-249).

절대와 유일이 부정되고 상대와 다양이 긍정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결과적으로 구심력(求心力)이 상실되고 원심력(遠心力)이 작용하는 열려지고 풀어진 구조를 예술형식으로 갖는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원심력이 주로 작용하는 장(場)으로서의 예술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 두드러진 예가 작품을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드러난다. 모더니즘에서는 예술 작품을 하나의 완성된 것으로 여겨, 이러한 작품에는 중심으로의 통합이 있는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예술 작품은 하나의 완성품이 아니라 단지 과정이며 해프닝(Happening)이고, 행위(Performance)일뿐, 거기에는 중심으로 통합을 이루려는 구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만이 작용한다. 그러므로 예술 작품 속에서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대비(Antithesis)만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을 뿐이다. 모더니즘에서는 따라서 작품의 의미 해석이 가능했으나,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해석이 불가능하게 되고 잘못 읽음(Misreading)자체가 바로 읽음이 된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술 작품에는 작품을 풀 수 있는 매스터 코드(Master Code)가 없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의 방법으로 읽는 것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작품에서는 모더니즘의 작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큰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의 전개가 결여돼 있고 단지 조그만 얘기들이 조각조각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작품은 모더니즘작품처럼 그저 읽기만 하는 (*Lisible, Readerly*) 텍스트가 아니라 독자 자신이 써나가는 (*Scriptible, Writerly*) 텍스트가 된 셈이다.

그러면 어째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텍스트는 읽혀지는 텍스트가 아니고 쓰여지는 텍스트가 되었을까? 그 가장 큰 이유는 권위를 가진 주체로서의 작가와 피동적인 독자의 구별이 없어졌다는 점에 있다. 지금까지 작가는 권위를 가지고 독자 위에 서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에는 작자와 독자가 이러한 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로 바뀌어 버렸다. 작자라고 특별히 독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는 더 이상 여겨지지 않는다. 모더니즘에서의 작가는 그의 의도에 따라 작품의 요소를 선별하여 작품을 만든 후에는 작품과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멀찌감치 서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작가는 작품의 요소를 아무런 다른 의도 없이 조합해 놓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작품 속에 참여하는 장(場)을 제공 할 뿐이다. 그러므로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작가는 멀찌감치 뒷집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 같이 작품의 생산에 참여한다. 물론 이 경우에는 포스트모더니즘에는 모더니즘에서 보이던 깊이가 없어지고 단지 표면만이 증시된다는 단점이 나타나게 되지만, 이는 모더니즘이 예술지상주의적인 특성을 가진 반면에 포스트모더니즘은 대중지향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 그 중요한 이유가 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대중지향적이고 서민이 중심이 된 미국에서 가장 넓게 퍼져 있는 예술 형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점은 쉽게 수긍이 갈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결정적인 특징이며,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할 점은 포스트모더니즘

적인 작품은 확정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일 것이다. 물론 이 경우 확정이라는 말은 의미의 확정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더니즘에서는 지시대상이 가지는 의미(Signified)를 중요시하여, 이를 작품에서 구현하려 했던데 반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기에는 지시대상의 위치가 약화됐을 뿐만 아니라, 작품은 단지 무의미한 지시어(Signifier)들의 집합일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에 끼워져 있어 텍스트사이의 관계(Intertext)로만 존재할뿐, 하나의 텍스트의 의미는 어디에서도 확정되어지지 않는다. 지시어들은 서로 서로 자리바꿈(displacement)만을 할 뿐으로, 이들은 어느 의미의 중심을 향하여 의미를 확정지우지는 못한다. 이러한 사실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많이 쓰이는 환유(Metonymy)에서도 드러난다. 환유는 모더니즘의 시에서 많이 쓰이는 은유(Metaphor)와는 달리 어느 의미 대상과의 일대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의 확정이 불가능한 비유의 언어이다. 반면 은유는 지시대상과의 일대일의 관계에서 의미를 확정시켜 주는 비유이다. 결과적으로 모더니즘에서는 형이상학에 기초한 초월적인 지시대상을 작품이 담고 있는 반면에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아이러니를 주축으로 한 내재성(Immanence)이 작품의 근간을 이룬다. 모아짐(Centering)을 근간으로 하는 모더니즘에서 의미의 확정이 가능하다면, 흩어짐(Dispersal)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의미의 확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연적인 결론이 된다. 지금까지 보아 온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도 그러므로 그 자체로서 확정적인 특징도 아니고 개별적이고 조합적인 여러 측면을 모은 것도 아니며 단지 이들을 펼쳐 보인 것일 뿐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좌파 문학 이론들

절대·유일의 권위가 제거된 포스트모던 시대는 다원화된 비평이론이 공존하는 시대이다. 더구나, 보수적인 우파 이론이 쇠퇴하여, 좌파이론의 전국시대이기도 하다. 어느 의미에서 볼 때 포스트모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Derrida의 탈구축(deconstruction) 이론은 좌파 문학 이론을 형성하는 데에 몇 가지의 다른 반응을 유발시켰다. 그 첫째의 반응은 탈구축이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시하는 좌파이론가들의 것이었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로써 미국에서는 Gerald Graff, Paul Lauter, Frank Lentricchia가 있고, 영국에서는 Perry Anderson, Terry Eagleton, 그리고 Raymond Williams가 있다. 이들이 탈구축이론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탈구축이론의 비정치적(apolitical)이고 비역사적(ahistorical)인 성향에 있다. 탈구축이론은 구조주의에 그 뿌리가 있으며, 구조주의는 역사주의(historicism)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역사주의가 통시적(diachronic)인 특성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라면, 구조주의는 공시적(synchronic)인 면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탈구축이론은 시간의 흐름에 관심을 두는 역사적인 측면에는 관심

이 없으며, 또한 역사의 動的인 측면을 강조하는 정치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좌파 이론가들이 탈구축이론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Fredric Jameson과 Edward Said, 그리고 영국의 Rosalind Coward와 John Ellis 같은 이론가들은 탈구축이론의 비정치성을 비난하면서도, 탈구축이론이 제시하는 통찰력을 심분 활용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이론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위의 두 종류의 문학이론가들과는 다르게 일단의 이론가들은 탈구축이론에 맞추어 자신들의 문학이론을 발전시켜 나간다. 이러한 좌파이론가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로는 John Brenkman, Michael Ryan, 그리고 Gayatri Spivak을 들 수 있다. 특히 Michael Ryan의 *Marxism and Deconstruction: A Critical Articulation*(Baltimore: Johns Hopkins UP, 1982)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저술이다. 그는 러시아에서 행해지고 있던 스탈린식의 관료주의와 레닌적인 규율에 반대하여, 중앙집권적이 아닌 민주적인 공산주의를 제창한다. 이러한 그의 성향은 제삼세계의 사회주의와 여성중심적인 마르크시즘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나아가서 프랑스의 급진적인 포스트-구조주의와 영국의 마르크스 비평이론을 지지하게 되었다. 그는 구라파의 신마르크스주의자들(Neo-Marxists)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특히 이태리의 이론가인 Antonio Negri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⁴⁾

탈구축이론이 비정치적이고 비역사적이어서 좌파이론가들로부터 여러가지의 다른 반응을 불러 일으킨데 반하여, Foucault의 이론은 권력과 역사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좌파이론가들에게 아무런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다. Foucault의 이론은 이성중심적(logocentric)인 논리의 전개에 반대하기때문에 이론 자체가 매끄러운 요약물 거부한다. 그의 이론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중심되는 개념을 보기로 한다.

Foucault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흔히 <담론(談論)>이라고 번역하는 <discourse>라는 개념이다. 이 discourse라는 단어가 우리 나라에서 <담론>, <담화>, <언술>, <언동>, <언술행위>, <언설> 등 여러가지로 번역되는 것에서도 보여지듯이 이 담론이라는 개념은 약간의 혼동을 유발하는 개념이다. 그가 그의 《지식의 고고학 *The Archaeology of Knowledge*(1966)》을 <담론들에 대한 하나의 담론 a discourse about discourses>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그가 말하는 담론이란 “[그 자신의 노력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와 모든 범주의 문화적인 삶”⁵⁾을 담론이라는 단어로 묶는다. 그러나 Foucault는 이러한 담론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는 담론의 성격상 불가능한 것이다. Discourse란 말은 라틴어의 *dis-*와 *curre*가 합쳐서 된 것으로, *dis-*는 “여러가지의 다른 방향으로”라는 의미이며, *curre*는 “달아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

4) Vincents B. Leitch, *American Literary Criticism from the Thirties to the Eighties*(N.Y.: Columbia UP, 1988), pp.382-383.

5) John Sturrock, ed., *Structuralism and Since: From Lévi-Strauss to Derrida*(N.Y.: Oxford UP, 1979), p.82).

로, 담론이라고 번역되는 *discourse*라는 단어는 “여러가지 다른 방향으로 달아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단어는 그러므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인 원심성을 보여주는 언설행위를 지칭하는 말로 봐도 크게 틀린 것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확산적이고 원심적인 특성을 가진 담론 자체도 따지고 보면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성을 보여준다. 포스트모던 시대는 곧 다국적 산업자본주의 시대라는 Jameson의 지적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포스트모던 시대는 곧 Jeremy Bentham이 구상한 원형감옥의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형감옥(Panopticon)에서는 중앙의 한 곳에서 감시자가 많은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게 설계된 감옥이다. 이 감옥에서는 죄수들은 따로 따로 떨어져 있고, 또한 감시자를 볼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므로 감시자는 죄수들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뿐만 아니라, 죄수들은 감시자가 없어도 언제나 감시받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형 감옥에 갇힌 죄수는 감시자가 없어도 감시받는 것으로 착각하듯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담론이 권력의 중심에 근거하지 않아도 담론은 곧 권력이기 때문이다. Foucault에게 담론은 다음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① 담론은 지식의 도구이다. ② 어떤 담론이 옳으나 그르냐는 담론의 내용에도 달려 있지만, 그 담론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달려 있다. ③ 담론 행위는 곧 권력을 잡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담론은 권력투쟁의 목표가 된다.⁶⁾

Foucault의 이같은 담론에 대한 이론은 지금까지의 역사에 대한 생각을 바꿔 놓았으며, 이는 또한 신 역사주의(New Historicism) 비평이라는 새로운 비평이론의 성립을 가능하게 했다. 역사란 결국 담론에 의하여 읽을 얻게 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권력이 이러한 담론의 과정 어디에나 관계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마르크스의 유명한 다음 두 마디 말과도 맥을 같이 한다.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를 <해석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인간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은 인간의 의식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의식을 결정짓는다.

이제 Foucault는 역사도 하나의 <담론 행위 discursive practice>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는 더 이상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담론에 의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갖게 되는 서술(narrative)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담론은 이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복사하는 기능에 머물지 않고, 사물에 힘을 가하여 이들을 바꾸어 놓게 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역사란 그러므로 세상을 아는 담론이 돼 버렸다. Foucault는 한 시대를 특징지우는 사고의 양식을 <인식소 épistème>라고 불렀는데, 담론으로서의 역사는 이제 이러한 인식소를 구성하게 되며, 또한 이에 의하여 달라지는 생

6) Josué V. Harari, ed., *Textual Strategies: Perspectives in Post-Structuralist Criticism*(N.Y.: Cornell UP, 1979), p.43.